

”

## ” I 대한 논평

맹 영선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황 종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박사님께서서는 발제문에서 생태영성 운동으로서의 생태복음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생태복음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현재 어떻게 시도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 이러한 모델이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 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생태복음화의 원리와 생태복음화 7단계 교육 내용은 참신했으며, 한번쯤 진행시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1. 박사님의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 우선 제 나름대로 '생태복음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태복음화'는 생태(eco)+ 복음화(evangelizatio)의 합성어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굳이 생태복음화라는 단어를 만드신 까닭은 분명 전(全)지구적 생태계(ecosystem) 위기 때문이겠지요?

생태계 위기는 생물학(biology)의 한 분야였던 생태학(ecology)을 새로운 학문분야로 주목받게 하였습니다. 사실 생태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 환경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태계 위기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볼 수 있었던 일련의 생태학자들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생물학의 한 분야였던 생태학(ecology)을 생태주의 사상들과 연결시켰지요. 이렇게 해서 생태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가 아닌 생태주의 사상들을 뒷받침하는 학문 분야로 부상하였고, 20세기 말부터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성찰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생태학적 성찰이란 모든 존재들이 다른 존재와의 상호의존적 그물을 형성하는 가운데 생태적 총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자신의 학문적 전문 분야 이름 앞에 생태(eco-)라는 접두어를 붙이고 있지요. 박사님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복음화 앞에 생태라는 접두어를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화(evangelizatio)는 신앙의 진리를 입으로 전달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전제합니다. 복음화는 진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1베드 3, 1-4)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화란 자신의 복음화를 전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교 스스로의 복음화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복음화란 '모든 존재들이

다른 존재와의 상호의존적 그물을 형성하는 가운데 생태적 총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즉 변화된 우리의 생태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생태복음화를 말할 정도로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 생태계 위기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그 대안도 달라지는데, 그리스도교의 인간중심적 자연관이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67년 린 화이트(L. White Jr)가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들"이라는 논문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연에 대한 오만이 생태계 위기의 근원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 이후, 그리스도교는 생태적으로 무용하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당연히 그 대응논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러나 대부분 신학자들의 과제는 생태계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교 책임론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었으며, 3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생태계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교 책임론에 대한 반론과 내적 성찰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이 청지기직을 비롯해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ecologically sustainable) 삶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어떻게 생태계의 안녕(安寧, wellbeing)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간곡한 권고보다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관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배우는 것(생태학)이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복음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생태계 위기라는 문제는 워낙 복잡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스스로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대안을 그리스도교 안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생태계 위기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종교 이외의 영역들, 즉 과학과 사회와 문화를 비롯한 인간 삶의 모든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종교 전통이나 철학적 시각 또는 과학만으로는 생태계 위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이제 내적 성찰보다는 다른 종교들과 종교 이외의 영역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생태계 위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1세기로 들어선 지금, 많은 생태주의자들과 다른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받았던 그리스도교를 '생태계 위기의 해결'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의 해결책은 필연적으로 다원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자체가 다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위기로 불리는 일련의 환경 문제들은 다양한 생태계 구성요소들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생태학은 필연적으로 우주론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며, 우주론적 사고방식에서 다양성(diversity)은 필수적입니다. 생태계 위기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지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교는 우선적으로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그리스도교 전통을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영적 전통들의 자원과 철학사상들도 검토해야 하며, 생태학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의 세계관과 철학적 세계관을 검토하는 것은 생태계 위기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합니

다. 또한 그리스도교는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 과학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과학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3. 생태계 위기라는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하여 만일 그리스도교가 침묵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사상가들 또는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과의 대화를 기피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창조 질서의 보전'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그리스도교는 생태계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통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태계 위기에 반응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순간도 생태계의 균형을 계속 깨트리고 있고, 조만간 이러한 인간 삶의 양식은 지구 전체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가 '생명'을 위협한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생태주의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다른 인간을 조종하고 지구를 약탈하면서 권력과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루가 9:23)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박사님의 발제문을 논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 시각으로 글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우선 글의 도입부에서 '하느님=생명 비전'이라는 도식과 생명이라는 주제가 그리스도교 전통이라는 접근은 좋습니다만, 그 신학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교 생명윤리가 인간의 성애(sexuality)를 둘러싼 문제에만 지나칠 정도로 편협하게 몰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생명윤리를 모든 창조물의 생명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학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박사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느님과 생명, 특히 예수 사건이 하느님 생명의 구현이라는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논거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2. 박사님께서서는 생태복음화가 그 동안의 가톨릭 환경운동이나 환경사목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서 생태복음화라는 신조어를 만드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발제문의 제목은 분명히 '생태복음화 모델 연구'인데, 전체적인 글은 환경 운동의 역사와 사례부분이 상당히 길고, 게다가 부분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천주교 환경운동의 역사적 접근이라면, 그 출발부터 각 교구의 흐름들과 현재의 진행상황을 균형 있게 나열했으면 더 좋았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글의 도입부에서 보다 분명하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복음화'와 환경운동과 환경사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더라면 글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듯도 싶은 '생태복음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글의 내용상 바로 한국 교회의 생태복음화 사례로 넘어가는데, 아시아 교회나 남미 교회 등 전(全)세계 가톨릭교회

에 대한 고찰이 있다면 생태복음화에 대한 선(先)이해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3. 박사님께서서는 발제문에서 천주교 환경운동 시작의 비판적 근거를 천주교 환경연대의 이동훈 신부님의 비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양한 비판 담론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환경운동을 시작한 1990년대 초반 그 당시에도 생태영성과 생태신학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사님의 글에서 '천주교 환경연대의 출범과 함께 천주교 환경운동이 새롭게 출발'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천주교에서 생태복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천주교 각 환경 단체들의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천주교회의 구조적 한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1990년 이후 가톨릭농민회는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탄생, 분리시키면서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발제문에서는 1990년 이후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생명운동을 위한 노력을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고민해 온 교구는 분명히 안동교구인데, 안동교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의 대표적 생명공동체 운동의 사례는 안동교구에 있습니다.

5. 서울교구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공식명칭은 '환경사목위원회'입니다. 또한 서울교구의 하늘땅물벗의 활동에 대한 언급 역시 과거의 연도별 흐름에 불과하고, 2000년 이후 그리고 최근 환경사목위원회의 활동과 연결되지 못하고 단지 나열식 전개에 불과한 활동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땅물벗에 참가했던 사제들(초창기 하늘땅물벗은 교구를 불문하고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중심으로 만들었던 환경사제 모임의 활동이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환경사제 모임의 가장 큰 고민이 생태영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박사님께서서는 생태복음화 모델로서 대구교구 고산성당과 수원교구 평창 필립보 생태마을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평창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 건물이나 현장 자체가 그다지 생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내용성에 있어서도 생태복음화 산간모델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평창 생태마을을 산간모델로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산간모델에 대한 박사님의 명확한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평창 생태마을은 아무래도 환경교육센터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전체적으로 생태복음화의 기본원리에는 동의하지만,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단계별 강좌가 생태복음화라는 큰 목표와 확실히 접목되지 않은 채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어쩌면 백화점식 나열의 강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생태복음화에 대한 지향이나 바람은 분명히 보이지만, 단지 단계별 강좌의 주제들을 설정하신 것만으로는 생태복음화 모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좌 주제의 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상호 연관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8. 마지막으로, 어쨌든 주제를 '생태복음화 모델 연구'로 정하셨다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복음화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가톨릭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생태복음화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몇몇 사례들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었다면, '생태복음화를 위한 영성과 교육 프로그램' 정도로 글 제목을 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입니다.